

『가곡원류』 편찬 연대 재고*

신경숙**

|| 차례 ||

1. 문제제기
2. 1872년, 『가곡원류』의 완성
3. 1872년 이전의 『가곡원류』
4. 고종조 초년의 가집

【국문초록】

『가곡원류』는 총 17종 이본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박효관의 原稿本과 編纂年代를 밝혀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논의 과정에서 알아낸 개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효관 원고본→하순일 소장→하규일 소장→국립국악원 소장’으로 전해졌다.

둘째, 하순일 편집의 略式 『가곡원류』 발문의 간기 ‘壬申’은 1872년이다.

셋째, 하순일 편집의 약식 『가곡원류』 발문과 동일한 발문이 <국악원본>에도 실려 있다.

넷째, <국악원본>은 발문에서 언급한 편자의 편집방식을 온전하게 갖춘 유일본이다.

다섯째, <일석본> <가람본>에도 박효관 발문이 실려 있으나, 이들 이본은 <국악원본> 이전에 작성된 초기 발문이다.

여섯째, <일석본> <가람본>의 수록작품은 <국악원본> 이전에 편집된 것이다.

일곱째, 『여창가요록』은 편자에 의한 1870년의 여창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①<국악원본>이 박효관 원고본이고, ②편찬연대는 1872년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7-322-A00061).

**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며, ③1872년 이전에도 여러 초기 이본들이 존재, 유통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주제어 : 가곡원류, 박효관, 원고본, 1872년, 하순일, 하규일

1. 문제제기

『歌曲源流』 편찬 시기는 1876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海東樂章』에 수록된 ‘安玖英序’의 간기를 『가곡원류』 편찬 연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도는 『가곡원류』 刊記가 발견되지 않은 최근까지 그 편찬 시기를 짐작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가곡원류』 편찬 연대를 재론하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가곡원류』는 高宗 初年 大院君의 비호에 의해 이루어진 가집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 1876년(고종13년)이란, 고종 즉위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이고, 대원군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1873년으로부터도 3년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1876년을 빌어 사용하는 것은 실제 『가곡원류』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시기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적절치 않다.

둘째, ‘1876년’이라는 연도를 박효관의 『가곡원류』가 아닌 안민영의 『해동악장』의 편찬연대로 구별해 봐야 한다는 일련의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주로 황충기, 오종각, 황인완, 강경호에 의해 제기된 이 논의들은²⁾ 『가곡원류』의 여러 이본들을 나름의 의미를 지닌 개별 가집으로 볼

1)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고려문화사, 1948), 민학사, 1974년 재발행, 109면.

2) 황충기, 『『가곡원류』 편자에 대한 이견(II)』, 『어문연구』 76호, 1992, 135면.

오종각, 『『가곡원류』의 새로운 이본인 『지음』 연구』, 『국문학논집』 15, 단국대 국어국문학회, 1997, 306~311면.

황인완, 『『가곡원류』 이본 계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24면.

것을 주장하고 있다.³⁾ 특히 강경호는 『해동악장』이 “대원군 관련 왕실과 박효관·안민영의 예인그룹 등 특정 향유 범위에서의 소용을 위해 편찬된 가집이며, 그 주변부와 관련된 유통 내력을 가진 가집”⁴⁾으로 여타 가곡원류계와는 뚜렷이 차별화된 이본임을 밝혀냈다. 이로써 1876년은 『가곡원류』의 편찬연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가곡원류』 이본들의 개별적 의미는 실제 편찬연대로부터의 시간적 거리를 알아야 할 필요를 발생시켰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곡원류』의 정확한 편찬 연대를 밝혀보고자 한다. 논증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분석 요소로 사용할 것이다.

첫째, 『가곡원류』의 ‘박효관의 발문’

둘째, 이본의 ‘필사 연대’

셋째, 발문과 필사기를 남긴 이본들의 ‘수록 작품’

2. 1872년, 『가곡원류』의 완성

1) 완성본의 구비 요건

현존하는 『가곡원류』의 여러 이본들 가운데서 완성본이 만들어진 때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 완성본’이 확정되어야 한다. 완성본이라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강경호, 「가집 『해동악장』의 작품 수록 양상과 편찬 특성」, 『어문연구』 1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19~227면.

3) 이본들간 차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황인완, 강경호의 글이다.

4) 강경호, 같은 논문, 236면.

첫째, 편자인 ‘박효관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존 17종 이본⁵⁾ 중에서 발문이 있는 것은 <국악원본> <규장각본> <일석본> <가람본> <화원악보> <하순일 편집본>의 6개 본이다.⁶⁾

둘째, ‘박효관 발문’에서 말한 편집 의도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편집 의도를 추출하기 위해 ‘박효관 발문’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매양 歌譜를 본즉 時俗의 노래가 순서와 명목이 없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세히 알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문하생 安致英과 더불어 서로 상의 하여 악보를 간략히 취하여 ①우조와 계면조, 명목과 순서를 나누어 초록하여, 새로운 歌譜를 만들어 후인으로 하여금 밝히 쉽게 고찰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②羽調와 界面調는 본디 고착된 것이 아니고 또한 옮겨가는 權變之도가 있으니 노래하는 자의 변통에 달려 있다. 혹 우조로 계면을 삼고 계면으로 우조를 삼으며, 식대엽 농 낙 편이 서로 옮겨 가면서 노래하기도 하니, 오로지 악보상의 명목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윤휴의 평상거입, 고저청탁도 변통·합세의 이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女唱도 女唱에만 고정되지 않고 男唱辭說 가운데 옮겨진 것이 있으니, 또한 그 이치에 신통한 자가 아니면 가히 해득할 수가 없을 따름이다.

노래는 비록 하나의 기예이나 太平聖世氣像의 源流가 된다. 옛날에는 위로 재상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뜻이 높고 속되지 않은 사람이

5) 『가곡원류』는 남창과 여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남창만 혹은 여창만 존재하는 경우도 뚜렷하게 『가곡원류』게임이 확인된 것은 모두 이본에 포함시키면, 총 17종이 존재한다. 가집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악원본)가곡원류』 『(규장각본)가곡원류』 『해동악장』 『화원악보』 『(프랑스본)가곡원류』 『(연대본)가곡원류』 『협률대성』 『(하합본)가곡원류』 『(가람본)가곡원류』 『(동양문고본)가곡원류』 『(육당본)가곡원류』 『(구황실본)가곡원류』 『(일석본)가곡원류』 『(하순일편집본)가곡원류』 『(서울대본)해동가보』 『(동양문고본)여창가요록』 『(정병욱본)녀창가요록』

6) 일반적으로 가집명은 이본의 출처를 밝혀 『(국악원본)가곡원류』 『(가람본)가곡원류』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자주 언급해야 하는 이본들의 경우, 이 제명이 너무 길므로 <국악원본> <가람본> 등과 같이 <>표 안에 ‘소장자 혹은 소장처’만을 밝혀주는 약식 명칭을 사용키로 한다.

노래를 짓고 불러서 그 뜻을 나타내고 마음을 펴곤 하였다. 賦比興과 같은 풍영의 취지는 시 삼백편의 雅頌國風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 律呂陰陽이 상생하는 이치, 字音 清濁 高低의 韻이 그 법도를 넘지 않으면 가히 사람의 뜻을 감발케 하고 즐겨도 음란하지 않게 된다. 무릇 읊고 노래하는 법도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소리가 바르지 않게 되니 이 어찌 군자의 정음이 아니겠는가?

최근 俗末의 碌碌謀利之輩들이 서로 쫓아 鄙吝之習을 널리 만연시켰고, 혹은 한가로움을 틈타 희롱하는 자들이 뿌리없는 雜謠와 謔浪之駭舉를 일삼는데 귀한 자 친한 자가 다투어 纏頭를 주어 이러한 습속을 복돋운다. 이것이 어찌 옛날 현인군자의 正音의 여파라고 하겠는가? 나는 正音의 민절함을 깨닫게 하지않아 歌關을 간략히 抄하여 ③한 권의 악보로 만들어 구절마다 高低·長短 點수를 표하여 후일 여기에 뜻이 있는 자를 기다려 거울이 되게 하고자 한다.⁷⁾

발문에 나타난 편집 의도는 밑줄 친 세 가지이다.⁸⁾ 즉 ①우·계면조로 나누고, 악곡 순서에 의해 사실이 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②우·계면, 악곡,

7) 『가곡원류』(국악원본) 跋. “余每見歌譜 則無時俗詠歌之第次名目 使覽者未能詳知 故與門生安玟英相議 略聚各譜 分基羽界名目第次 抄爲新譜 欲使后人 昭然易考 而羽界非本係着者 亦推移有權變之度 唯在歌者之變通 而或以羽爲界 以界爲羽 數大葉弄樂編 互相推移歌之 非徒以譜上名目偏執可也 韻彙之平上去入 高低清濁 亦有權變合勢之理也 且所謂女唱辭說 亦非女唱坪係着者也 男唱辭說中 移以爲之者也 亦非會理通神者則 不可解得者也爾

歌雖一藝 乃聖世太平氣像之源流也 古者 上自卿宰 下至藜庶 志高不俗之人 有製有唱 述其志敘其懷 而興賦比諷詠之趣 與詩三百雅頌國風 相爲表裏 律呂陰陽相生之理 字音清濁高低之韻 不踰其矩 可以感發人之志 而樂而不淫者 凡詠歌之度 心不正則聲不正 是豈非君子之正音乎 挽近俗末碌碌謀利之輩 巧巧相趨 薰然共化於鄙吝之習 或偷閑爲戲者 以無根之雜謠 謔浪之駭舉 貴賤爭與纏頭習尙 奚有古賢人君子爲正音之餘派者 余不勝慨歎其正音之泯絕 略抄歌關爲一譜 標其句節高低長短點數 俟后人有志於斯者 爲鑑準焉”

8) 『가곡원류』의 가장 원론적 입장은 ‘군자의 正音 지향’이란 뜻으로 발문에 표현되었다. 여기서는 가시적인 편집형태로 드러난 편집의도를 주로 분석하기에 이 원론적인 지향 의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녀창 사설 중에서 이치에 맞게 서로 옮겨진 것이 있어야 하며, ③노래 가사에 고저·장단 점수를 표하는 악보가 그려져 있어야 한다. 이 중 ①②의 요소는 모든 이본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⁹⁾ ③의 연음표 악보는 일부 이본에서 나타난다.¹⁰⁾

따라서 ‘박효관 발문’을 갖추고 있어도 ‘연음표 악보’가 없는 것은 완성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발문을 구비한 이본들 중에서 연음표가 없는 <일석본> <가람본> <화원악보>의 세 권은 박효관에 의한 완성본이 될 수 없다.

이제 ‘발문’ ‘연음표’ 모두 갖춘 것은 <국악원본> <규장각본> <하순일 편집본>세 이본이다. 이 중 <규장각본>은 <국악원본>에 비해 약 1/5 이라는 현격히 낮은 ‘연음표’를 기입하고 있어 완성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¹¹⁾ 그리고 <하순일 편집본>은 <국악원본>을 저본으로 하여 총 24수의 남창 한바탕으로 의도된 최소형 가집이다.¹²⁾ 따라서 『가곡원류』 완성본의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은 <국악원본>뿐이다.

이러한 사실 외에, <국악원본>은 한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유려한 필체로 일관하고 있으며, 연음표 또한 붉은 색으로 매우 정교하고 충실하게 그려져 있어 완성본일 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일찍이 심재완이 <국악원본>을 完本일 것으로 추정¹³⁾ 이래로 학계에서 <국악원본>을 最善本으

9) 『(하순일 편집본)가곡원류』 『(서울대본)해동가보』는 略式이고, 『(이혜구본)녀창가요록』 『(동양문고본)여창가요록』은 여창뿐이어서 ②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

10) <국악원본> <규장각본> <연대본> <프랑스본> <하합본> <하순일 편집본> 『혈통대성』 『(이혜구본)녀창가요록』 『(동양문고본)여창가요록』 『(서울대본)해동가보』의 10권이 있다.

11) <국악원본>은 762수, <규장각본> 167수에 연음표가 그려져 있다. 황인완, 앞의 논문, 21, 23면.

12) 신경숙,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시조학논총』 26집, 한국시조학회, 127면.

13)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51면.

로 다루어온 사실과 같다.

2) 1872년의 박효관 발문:

〈국악원본〉 〈하순일 편집본〉 〈가람본:발문1〉

앞에서 발문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낸 것은 〈국악원본〉이 유일하며, 이로써 이를 완성본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는 추정을 넘어, 〈국악원본〉이 실제 박효관에 의해 만들어진 완성본이고, 그 편찬 시기는 1872년이라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코자 한다.

먼저 편찬 연대부터 알아본다. 편찬 시기는 〈하순일 편집본〉 〈가람본〉에 기록된 刊記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두 본의 ‘박효관 발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간기는 쓰여있다.

〈하순일 편집본〉¹⁴⁾ 歲壬申春題

〈가람본: 발문1〉¹⁵⁾ 崑壬申春題¹⁶⁾

- 河順一氏所藏寫本中抄出

壬申은 1872년에 해당한다. 두 발문의 간기로 보아 『가곡원류』 편찬은

14) 〈하순일본〉이라 하지 않고 〈하순일 편집본〉이라 한 것은, 남창 24수만을 별도로 ‘하순일이 편집’했음을 밝히는 後記가 이 가집 말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논의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국악원본〉은 ‘하순일 소장본’이다. 이에 하순일이 소장했던 것과 편집해서 만든 각각 2개 이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순일 소장본’과 ‘하순일 편집본’을 구별하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15) 〈가람본〉에는 발문이 두 개가 있다. 동일한 발문이나, 몇 군데 글자의 차이 때문에 대비를 위해 ‘발문1’을 후대에 끼워 넣은 것이다.

16) ‘崑’는 時의 古字.

1872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하나는 그동안 <하순일 편집본>이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람본>이 일찍부터 알려지긴 했으나 ‘발문1’의 간기를 1932년으로 읽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기를 60년 늦추어 잡은 것은 <가람본>이 다른 이본들의 딱 절반의 작품량을 갖춘 축약본이라는 사실이 한몫을 했다.¹⁷⁾ 축약본이므로 원 『가곡원류』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에 따라 ‘壬申’을 편찬연대로 알려진 1876년 이후로 여겨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가람본>의 ‘발문1’은 “河順一氏所藏寫本中 抄出”이라는 글귀처럼 <하순일 편집본>의 발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¹⁸⁾ 실제 발문 내용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하순일 편집본>은 河順一이 조양구락부에서 가곡교사를 하던 1910년에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가람본>의 ‘발문1’은 <하순일 편집본> 발문을 베껴 새로이 끼워 넣은 것이고, 그 시기는 1910년 이후이다. 이렇게 해서 <하순일 편집본> ‘발문’과 <가람본> ‘발문1’은 똑같은 하나의 발문이다. 즉 <가람본> ‘발문1’의 壬申은 <하순일 편집본>

17) <국악원본>과 비교해보면, <국악원본>은 856수인데 반해 <가람본>은 딱 절반인 428수이다.

18) <가람본>의 내용은 ‘가곡 부분’ ‘발문1’ ‘발문2’ ‘가사’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內紙는 두 가지 사이즈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전반부 ‘가곡 부분’은 큰 사이즈이고, 후반부 ‘발문1·2와 가사’ 부분은 작은 사이즈이다. 후반부 종이 크기는 전반부보다 가로 2.5cm, 세로 0.3cm가 더 작다. 또한 후반부 중에서도 ‘발문1’은 종이 크기는 후반부 다른 종이들과 같은 사이즈이지만, 종이의 바랜 정도는 뚜렷이 구분될 만큼 낡지 않은 밝은 색을 띄고 있어, 가장 후대에 삽입되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즉 <가람본>은 전반부 ‘가곡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에 ‘발문2와 가사’를 따로 필사해 합철했으며, 다시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이 베끼긴 ‘발문1’을 또다시 합철해 넣었다. 즉 첫 책을 만든 후, 두 번을 해철했다가 다시 합철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가람본>이 이루어졌다.

과 같은 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하순일 편집본>이 1910년에 만들어졌으니, ‘壬申’은 1910년 이전에 해당하는 1872년임이 확실하다.

이제 1910년 당시, 하순일이 편집본을 만들기 위해 모본으로 삼았던 ‘壬申’에 제작된 『가곡원류』가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이 이본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박효관에 의한 완성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壬申’ 간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본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1872년’의 『가곡원류』를 찾기 위해서는, 1910년 <하순일 편집본>의 ‘발문’과 동일한 ‘박효관 발문’이 어느 이본에 수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효관 발문’은 모두 6개 이본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들 발문들은 모두 약간씩의 字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람본>이 동일 내용의 ‘발문1’ ‘발문2’ 두 가지를 모두 수록했던 것도 이런 字句 차이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¹⁹⁾ 현재 6개 이본들 중에서 <하순일 편집본>과 字句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발문은 유일하게 <국악원본>뿐이다. 또한 <국악원본>에서는 <하순일 편집본>에 나타나는 ‘연음표’와 ‘울당삭대엽의 移調 표시’ 등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²⁰⁾ 이로보아 하순일은 <국악원본>을 모본으로 하여 ‘1910년의 편집본’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순일 편집본>과 <국악원본> 발문 간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순일 편집본> 발문에는 <국악원본>에 없는 구절이 서두와 말미에 더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문 앞에 “雲崖朴先生孝寬曰”이, 발문이 끝난 부분에 “歲壬申春題”가 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하순일 편집본>은 원래 이 두 구절이 포함되어 있던 발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혹은 발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사 주관자 하순일’이 ‘발문자 박효관’

19) ‘字句 대비’를 위해 발문을 두 가지나 수록했다는 증거는 ‘발문2’의 상단 여백에 ‘다른 발문’들과의 대비 결과 나타나는 글자 차이를 일일이 적어 놓은 것으로 알 수 있다.

20) 신경숙, 앞의 논문, 132~134면.

을 밝혀주기 위해 덧붙인 것인지 확실치 않다.²¹⁾

그에 비해 <국악원본> 발문에는 ‘발문자 이름’ ‘간기’ 어느 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 발문을 쓴 編者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초기 시가 연구자들의 노력도 오랫동안 이 발문이 ‘박효관의 것’임을 밝히는데 사용되었다.²²⁾ 근대 초에도 이미 『가곡원류』 이본들의 編者나 編纂時期에 대해서는 꽤나 잊혀진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초 이 같은 정황으로 보아, <하순일 편집본> 발문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의 ‘발문자 이름’과 ‘간기’는 하순일이 덧붙여서 밝혀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순일은 <국악원본>을 완성본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국악원본> 발문에다가 ‘발문자와 간기’를 보완하여 편찬자와 편찬연대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국악원본>이 ‘박효관에 의한 최종 완성본’일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위 분석도 대부분 추정이기에 분명한 확증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일 뿐이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이왕직 아악부에 드나든 경험이 있던 가람 이병기는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남기고 있다. 가람이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 서문에서 언급한 아래의 대목이 그것이다.

지금 이 책(필자: 『가곡원류』)이 사본, 혹은 등사본으로 몇 부가 각처에 있는데 故河圭一氏所藏은 朴孝寬의 門生인 河順一所藏으로 그 原稿本을 전하는 것이라 한다.

이번 간행하는 增補歌曲源流는 조선음률에 권위인 咸和鎭州가 李王職雅

21) <하순일 편집본>의 필사는 매우 단정하고 유려하며, 매화점 장단이나 연음표도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 전문 필사자가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사 주관자 하순일’이라 한 것은 내용을 편집하고, 필사토록 기획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2) 조윤제, 「가곡원류」 해제, 『조선어문』 5, 조선어학회, 1932, 11면. / 심재완, 앞의 책, 51면.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8, 440~441면.

樂部 樂士長으로 있을 때 故河圭一氏 所藏을 抄出하고 여러 헛동안 갖갖으로 해당하는 가사를 모아 正誤增補하여 금상첨화가 된 것이다.²³⁾

이 글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첫째, 박효관의 ‘原稿本’은 본디 하순일이 소장해왔고, 이후 하규일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하순일이 박효관의 門生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하순일 소장본이 박효관의 ‘原稿本’임을 보다 확실히 증언해준다. 셋째, 함화진은 이왕직악악사장으로 있을 때, 하규일 소장 ‘原稿本’을 참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原稿本’이 이왕직악악부에서 전승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이를 요약하자면, ‘박효관 原稿本→하순일 소장→하규일 소장→함화진 참조’로 전해졌다는 뜻이다. 가람 이병기는 하규일이 이왕직악악부 촉탁으로²⁴⁾ 그곳 사람들에게 가곡을 가르칠 때에 직접 연습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규일, 함화진 등 악부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다.²⁵⁾ 따라서 가람의 이 증언들은 악부에서 직접 전해들은 내용일 터이니, 매우 신빙할 만한 정보라 하겠다.

여기서 ‘河順一 소장본’이 河圭一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당시 조선정악전습소에서 함께 가곡교사를 했기 때문이다. 하순일은 1909년 조양구락부 발족에 참여하여 이 단체의 가곡 교사진을 구성했으며, 그 자신도 가곡 교사가 된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은 1911년 조양구락부가 조선정악전습소로 거듭날 때, 하순일은 사촌동생 하규일을 영입하여 사촌형제가 함께 歌教師를 했다.²⁶⁾ ‘하순일 소장본’이 ‘하규일’에게 전해진 것

23) 함화진 편, 『중보가곡원류』, 종로인문사, 1943, 2면.

24) 하규일은 1926년부터 1937년 작고할 때까지 매일 이왕직악악부 촉탁으로 가곡과 가사를 가르쳤다.

25)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06면

26) 신경숙, 「근대초기 가곡 교습」, 『민족문화연구』, 4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215~222면

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하규일 소장본’이 바로 오늘날 <국악원본>이다. ‘하규일 소장본’은 초대 국립국악원장인 ‘이주환’에 의해 입수되었고, 이주환은 다시 이를 ‘국립국악원’에 기증한 함으로써 오늘날 국립국악원이 소장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²⁷⁾ 하규일, 이주환 두 사람은 아악부와 국립국악원에서 일을 했고, 이에 따라 原稿本은 이 동일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악원본>의 작품 본문 말미, 곧 여창 본문 끝에는 초대 국악원장 이주환의 도장이 찍혀 있다.²⁸⁾

이상의 사실들은 오늘날 <국악원본>이 바로 ‘박효관의 原稿本’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왕직아악부가 오늘날 국립국악원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앞의 함화진이 ‘제5대 이왕직 아악사장’이고, 이주환이 ‘제6대 이왕직 아악사장이자 초대 국립국악원 원장’이다. ‘박효관의 原稿本’은 처음 조선조말 가객 하순일, 하규일을 차례로 거쳐 전해졌고, 이어 이왕직 아악사장 함화진, 초대 국립국악원장 이주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순일 편집본> 첫 장에도 이주환 도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하순일 편집본>도 원고본인 <국악원본>과 함께 이왕직 아악부를 통해 전해졌을 것이다.²⁹⁾

이제 <하순일 편집본>의 편집 경위도 확연히 드러난다. 하순일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박효관 원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남창 한바탕 ‘편집본’을 제작하고, 여기에 원고본의 발문도 함께 옮겨 왔던 것이다. 그리고 발문을

27) 장사훈, 『가곡원류』 해제, 『가곡원류』, 한국음악학자료총서 5, 국립국악원, 1981, 4면.

28) 『가곡원류』(국악원본) 한국음악학자료총서 5, 같은 책, 158면.

29) <하순일 편집본>은 조양구락부 가곡 교본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양구락부는 곧바로 조선정악전습소로 개명하면서 새로이 하규일을 영입한다. 이후 하규일 중심으로 조선정악전습소가 경영된다. 이후 하규일은 1926년부터 이왕직 아악부 촉탁으로 가곡 교사를 하게 된다. 조선정악전습소와 이왕직 아악부의 계기성은 이러한 하규일 활동에서 비롯된다.

옮기면서 첫머리에 “雲崖朴先生孝寬曰”를, 발문 마지막에 “歲壬申春題”를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덧붙임은 ‘원고본’에 없었던 것이니, 하순일 기억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문은 박효관의 것이고, 1872년 봄에 작성되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하순일 자신이 ‘박효관 문생’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원고본’을 소장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하순일의 이 기억은 과연 믿을만한가? 즉 하순일은 과연 박효관의 문생이 확실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河順一을 박효관 문생이라고 한 것은 가람의 기록 외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박효관 문생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발문에 기록된 安玟英뿐이었다. 또한 후대 연구자의 기록이기도 하나 『가곡원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로는 朴孝寬, 安玟英, 金允錫, 河圭一만이 알려져 있다.³⁰⁾ 따라서 가람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순일이 박효관과 동시대에 활동했음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현재 河順一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³¹⁾ 하순일의 사촌동생 하규일이 1937년에 沒한데 비해, 조선정악전습소의 첫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주역 하순일은 1913년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규일이 조선정악전습소와 이왕직아악부 활동을 지속하는 사이에도 하규일보다 먼저 가곡 교사의 선편을 잡았고, 하규일을 전습소 사업에 끌어들었던 그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하순일은 대략 1913년 직후 매우 노쇠해져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규일이 이후 약 25년간 더 활동을 했으니, 하순일은 1867년생 하규일보다 훨씬 높은 연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구자균, 앞의 책, 109면.

31) 이하 하순일 활동에 대한 것은 신경숙, 「근대 초기 가곡 교습」(217~228면)의 글에 따른다.

실제 하순일의 활동들은 19세기 후반부터 포착된다. 하순일은 그의 삼촌 혹은 부친으로 추정되는 하중곤과 함께 무시로 운현궁을 드나들던 운현궁 대령가인이었다. 또한 하중곤과 함께 박효관 가단에서 활동했음도 발견된다. 하중곤의 경우는 1873년 승평계 가단 모임에서, 하순일의 경우는 <일석본>에 편집된 박효관 가단 인물들의 작품군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또한 1909년 조양구락부를 조직할 때, 조선조말 궁중 출입 가객을 영입하는 수완을 보일만큼 그 자신이 이미 뛰어난 가객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순일이 박효관 가단에서 활약한 가객이었음을 확실하게 말해준다. 따라서 하순일을 박효관 문생이라고 말한 가람의 증언은 믿을만한 사실이다. 하순일은 박효관의 문하에서 활동한 젊은 가객이면서, 1872년 『가곡원류』의 탄생을 지켜보았고, 이후 스승의 원고본을 소장해오며 20세기 초까지 가곡계에서 활약했던 것이다.³²⁾

한편 ‘1872년의 박효관 원고본’인 <국악원본> 수록작품 가운데는 1872년 이후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붓 싯히”(1873년, 안민영 작), “空山 風雪 夜에”(1874년, 안민영 작), “雨絲絲 錄柳絲絲”(1875년, 안민영작)³³⁾가 그것이다. 이런 작품들이 壬申(1872) 이후의 것이면서도 <국악원본>에 수록된 경위를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刊記와 수록작품’ 사이의 이 같은 간극은 이미 『금옥총부』 『해동악장』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³⁴⁾ 대체로 가집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작품 본문’과 ‘서문(혹은 발

32) 이런 의미에서 『가곡원류』 편찬에 하규일이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효관은 1800년생이고 1880년 작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규일은 1867년생이었으니, 1872년 『가곡원류』 편찬시기에는 불과 5살이었고, 박효관 작고 당시에도 겨우 13살이었기 때문이다. 신경숙,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146~147면.

33) 차례로 <국악원본> 남창 139번, 352번, 여창 38번 작품이다.

34) 『금옥총부』의 ‘안민영 序’는 1876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1876년 이후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후의 작품은 1885년 안경지의 죽음을 노래한 120번 작품이다. 『해동악장』의 ‘안민영 序’도 1876년으로 되어 있으나, 역시 이 가집에는 이후의 작품들이 다수 들어있다. 예를 들어 여창 131번은 1877년 진연 직후 강릉 관아로 떠난

문)이 모두 만들어진 이후, ‘서문(혹은 발문)’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몇몇 작품이 추가’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악원본>에서 발견되는 ‘발문 연대’와 ‘작품 수록 연대’의 다소간 차이는 오늘날 여타 가집들에서 쉬 발견되는 같은 현상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³⁵⁾

3. 1872년 이전의 『가곡원류』

여기서는 <국악원본>(1872) 이전에 만들어진 『가곡원류』를 찾는 작업을 하되, ‘박효관 발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대가 뚜렷이 밝혀진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1) 1872년 이전의 박효관 발문: <일석본> <가람본: 발문2>

앞에서 『가곡원류』 편찬연대 파악에 ‘박효관 발문’의 존재여부를 중요한 분석 요소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연습표가 없어 완성본의 ‘박효관 발문’ 논의에서 처음부터 배제된 두 편의 跋을 대상으로 한다.³⁶⁾ 이들 제외된 발문들은 1872년 발문과 비교해 볼 때, 내용상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차이를 보이는 두 편은 <일석본>과 <가람본: 발문2>이다. 이들의 발문

홍연을 노래한 것이고, 여창 147번은 1877년 양대운의 서울 방문을 노래한 것이다.

35) 발문과 창작연대의 차이는 이 가집의 최종 형성에 대해 더 논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준다. 본고는 아직 이에 대한 천착을 하지 못해, 가집을 바라보는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을 수용했다.

36) 앞의 논의에서는 6개 발문 중에서 <국악원본> <하순일 편집본> <가람본: 발문1>을 주 대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나머지 발문은 <규장각본> <화원악보> <일석본> 3개가 더 있다. 이 중 <규장각본> <화원악보>는 <국악원본> 이후의 것들이므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전문을 제시해서 그 차이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토록 한다. 앞에서 번역문을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일석본> 발문³⁷⁾

余每見歌譜 則無時^㉑詠歌之第次名目 使覽者未能詳知 故^㉒畧聚各譜 分其羽界名目第次 抄爲新譜 欲使后人 昭然易考 而羽界本非係着者 亦推移有權變之度 唯在歌者之變通 而或以羽爲界以界爲羽 數大葉弄樂編 互相推移歌之 非徒以譜上名目編執可也 韻彙之平上去入高低清濁 亦有權變合勢之理也 且所謂女唱辭說 亦非女唱坏係者也 男唱辭說中 移以爲之者也 亦非會理通神者 則不可解得者也爾

歌雖一藝 乃聖世太平氣像之源流也 古者 上自卿宰 下至藜庶 志高不俗之人 有製有唱 述其志叙其懷而興賦比諷詠之趣 與詩三百篇雅頌國風 相爲表裏 律呂陰陽相生之理 字音清濁高低之韻 不踰其^短^㉓ 可以感發人之志而樂而不淫者 凡詠歌之度 心不正 則聲不正 是豈非君子之正音乎 挽近俗末碌碌謀利之輩 孜孜相移 薰然共化於鄙吝之習 或偷閑爲戲者 以无根之雜徭 謔浪之駭學 貴賤爭與纏頭習尙 奚有古昔賢人君子 爲正音之餘派者 余不勝慨歎其正音之泯絕 畧抄歌闕爲一譜 標其句節高低長短點數 俟后人有志於斯者 爲鑑準焉

<국악원본>에 더 있는 글자, 구절들³⁸⁾

- ㉑ - “俗” 글자가 더 있음
- ㉒ - “與門生安玫英相議” 구절이 더 있음

37) <일석본>은 원본이 분실되어, 본고에서는 이하 <이재수 전사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심재완, 앞의 책, 58면.

38) 현 <일석본>에는 ㉑㉒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여백에 삽입표시와 함께 보충되어 있다. 보충한 글자는 전사본 완성 이후에 상단 여백의 歌番을 몇 차례 수정해 새로이 매겨나가는 과정에서 사용된 속필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사본 완성이후의 추가된 글임이 확실하다.

<국악원본>에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 것

- ㉠ - “矩”로 되어 있음

<가람본: 발문2>

余每見歌譜 則無時俗詠歌之第次名目 使覽者未能詳知 故㉡略聚各譜
 分其羽界名目第次 抄爲新譜 欲使后人 昭然易考 而羽界本非係着者 亦推
 移權變之度 唯在歌者之變通 而或以羽爲界 以界爲羽 數大葉弄樂編 互相
 推移歌之 非徒以譜上生㉢目編執可也 韻彙之平上去入高低清濁 亦㉣權變
 合勢之理也 且所謂女唱辭說 亦非女唱坪係着者也 男唱辭說中 移以爲之者
 也 亦非會理通神者 則不可解得者也爾

歌雖一藝 乃聖世太平氣像之源流也 古者 上自卿宰 下至黎庶 志高不俗
 之人 有製有唱 述其志叙其懷而興賦比諷詠之趣 與詩三百雅頌國風 相爲表
 裏 律呂陰陽相生之理 字音清濁高低之韻 不踰其規㉤可以感發人之志 而
 樂而不淫者 凡詠歌之度 心不正 則聲不正 是豈非君子之正音乎 挽近俗未
 碌碌謀利之輩 孜孜相趨 薰然共化於鄙吝之習㉥尚 奚有古昔賢人君子 爲正
 音之餘派者 余不勝慨歎其正音之泯絕 畧抄歌闕爲一譜 標其句節高低長短
 點數 俟后人有志於斯者 爲鑑準焉

<국악원본>에 더 있는 글자, 구절들

- ㉦ - “與門生安玟英相議” 구절이 더 있음
- ㉧ - “有” 글자가 있음
- ㉨ - “有或偷閑爲戲者 以無根之雜謠 謔浪之駭舉 貴賤爭與纏頭習”의 구절이 더 있음

<국악원본>에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 것

- ㉩ - “名”으로 되어 있음
- ㉪ - “矩”로 되어 있음

대조 부분은 완성본으로 밝혀진 1872년 <국악원본>과 다르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영문 알파벳 a①b②c③d④는 완성본에는 있으나 이들 두 이본에는 없는 글자·구절들이다. 국문 자모 ㉠㉡은 완성본의 글자와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들이다.

두 발문에서 나타나는 완성본과의 차이는 공통성과 개별성을 함께 보인다. 우선 ㉠㉡ 글자 차이에서 보면, 완성본의 글자들이 문맥을 매끄럽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³⁹⁾

다음으로 완성본에 있는 a①b②c③d④와 이 구절들이 없는 이본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①②는 정보량이 많고, 정보가 발문에서 차지하는 의미비중도 크다. 그에 비해 a③는 한 글자뿐이고, 이는 앞의 ㉠㉡ 경우처럼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 a③는 완성본 경우가 문장이 자연스럽게, 위 두 이본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친 문장을 만들고 있다. 이는 두 발문을 거쳐 <국악원본> 발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보여준다. 다음 정보량이 많은 ③④에서 ③는 “문생 안민영과 더불어” 작업을 했음을, ④는 “혹은 한가로움을 틈타 희롱하는 자들이 뿌리없는 雜謠와 謔浪之駭學를 일삼는데 귀한 자 천한 자가 다투어 纏頭를 주는 습속을 복돋운다”고 하여 개탄스런 시속 노래문화를 힐난하고 있다.

이 중 정보량이 많은 후자의 두 사례 ③④는 원래 있던 것을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이들 구절이 없는 체로도 문장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발문들은 본래의 문장이었을 확률이 높다. 둘째, 이 두 내용은 모두 해당 부분의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즉 ③가 없어도 ‘향간의 歌譜들이 순서와 명목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각 악보들을 취하여 순서를 바로잡아 이 가집을

39) 이들 글자의 차이는 발문을 써나가는 사이 실수로도 볼 수 있다. 한편 ㉠과 같이 똑같은 부분에서의 공통적으로 다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이본의 지본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글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만들었다'라는 정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안민영과 상의'했다는 간략한 구절을 통해 함께 작업한 사람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㉔에서는 '최근 속말의 녹녹모리지배들이 비루한 습속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미 전하려고 하는 뜻은 충분하다. 그런데 비루한 습속의 사례로써 '한가로움을 틈타 희롱하는 자들이 뿌리 없는 잡요, 실없는 희롱으로 괴상한 짓을 벌이는 것에 너도나도 돈을 지불하는 습속'을 추가해 강조 효과를 내는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본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자세한 추가적 정보'들은 위 두 발문들의 '교정'을 통해 나온 것임을 짐작케 한다. 즉 <일석본> <가람본: 발문2>는 <국악원본>(1872)보다 먼저 만들어진 발문임을 알 수 있다.

2) <일석본><가람본>과 <국악원본> 선후관계

앞에서 <일석본><가람본>의 발문들이 <국악원본>보다 먼저 만들어졌음을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 <일석본>과 <가람본>은 이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즉 <일석본>은 원본이 분실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재수 전사본이다. <가람본>은 일반적인 이본의 절반 작품량에다가 작품어귀의 오기가 많으며, 다른 필체에 의해 추록된 부분도 많다.⁴⁰⁾ 따라서 이들 이본의 발문들은 후대의 謄記 혹은 일부 구절의 탈락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존 두 이본이 비교적 근세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선후관계로 보자면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기서는 <일석본><가람본>과 <국악원본>의 수록작품 비교를 통해, 그 선후 관계를 밝혀보기로 한다.

40) 심재완, 앞의 책, 58면.

○ <일석본>과 <국악원본>

<일석본> 633수와 <국악원본> 665수의⁴¹⁾ 수록작품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일석본>의 모든 작품은 <국악원본>에 전체가 다 실려 있다. 가곡원류계 이본들 가운데 이같이 완벽하게 공출하는 경우는 <국악원본>의 전사본이 <규장각본>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 공출 작품은 단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서까지 완벽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5곳도 4군데는 앞뒤 순서 바뀜 정도이고, 1군데만 약간의 격차를 보일 뿐이다. 이는 兩本이 매우 직접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배열순서가 달라진 5곳’

<일석본> 286, 291 → <국악원본> 293, 294

<일석본> 363, 362 → <국악원본> 373, 374

<일석본> 515, 514 → <국악원본> 538, 539

<일석본> 621, 620 → <국악원본> 652, 653

<일석본> 627, 626 → <국악원본> 658, 659

둘째, <일석본>의 모든 작품은 <국악원본>에 다 실려 있지만, <국악원본>에는 <일석본>에 없는 32수가 더 있다. 즉 이들 작품은 <국악원본>에만 등장하는 것들이다. 이 작품들의 歌番과 作家는 다음과 같다.⁴²⁾

41) <일석본>은 남창만 존재하므로, 비교는 양본의 남창만을 대상으로 한다.

42) 이하 歌番들은 <국악원본>의 가번들이며, 작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괄호 안에 작가명을 밝혔다.

‘삭대엽 계열’

우조 삭대엽 - 43(김류)
우조 평 거 - 100(안민영)
우조 삼삭대엽 - 139(안민영)
반 엽 - 165(안민영)
계면 삭대엽 - 218(유응부)
계면 중 거 - 262(임의직) 274(정두경) 295(호석균)
계면 평 거 - 318(이정진) 352(안민영) 353(안민영)
계면 두 거 - 413(안민영) 418(임진) 434
계면 삼삭대엽 - 460

‘농낙편 계열’

만황 - 483
농가 - 506 507 513 521 526 527 536 537 540 542 546
계락 - 556 557 566
우락 - 581
얼락 - 619

<국악원본>에만 나타나는 이들 작품들은 ‘삭대엽’ 계열에서는 대부분 유명씨 작가 작품들이고, ‘농낙편 계열’에서는 무명씨 작품들이라는 특색을 보인다.⁴³⁾ 이 중 ‘삭대엽 계열’의 유명씨 작품들은 뚜렷하게 2종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김류, 유응부, 정두경, 임진’ 등 오래된 유명 작가 작품들이고,

43) ‘농낙편 계열’이 주로 사설시조 형태가 높고,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평시조 형태가 주로 실리는 ‘삭대엽 계열’에서는 유명씨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무명씨 작품들이 많이 실린다. 따라서 ‘삭대엽 계열’에 더 나타나는 작품들이 단 2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명씨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민영, 임의직, 호석균, 이정진’ 등 당대작가의 작품들이다. 이런 양상은 『知音(乾)』을 저본으로 『가곡원류』를 만들어가던 방식과 똑 같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⁴⁴⁾ 즉 『가곡원류』는 끊임없이 ‘당대인의 작품’과 ‘역사상 유명 작가 작품’을 『지음』 작품들 배열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이 가곡원류 계열 내부에서도 정확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석본> 작품배치 사이사이에 32수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국악원본>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석본>에는 1872년 이후 창작되었음에도 <국악원본>에 수록되어 시대추정에 다소 혼란을 빚게 했던 앞의 3수 작품도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⁴⁵⁾ 이 역시 <일석본>을 저본으로 하여 <국악원본>이 작품을 추가시켜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일석본>과 <국악원본>의 공출 작품들 간에는 가번 순서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 <국악원본>(1872)은 <일석본>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32수 작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말하자면, <일석본>을 보완하여 완성본 <국악원본>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악원본> 발문도 <일석본> 발문의 보완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석본>이 만들어진 시기는 ‘발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872년 여름에 아주 가까운 때였을 것이다.

○ <일석본>과 <가람본>

<가람본>은 428수로 이루어진 축약본이다. 그런데 <가람본> 남창 전 작품은 여러 이본들 가운데 오직 <일석본>과만 공출된다.⁴⁶⁾ 이를 달리 말

44) 신경숙, 「조선후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한국고전문학회 248차 학술대회 자료집, 70면.

45) 앞에서 제시했던 1873, 1874, 1875년도의 안민영 작품을 말한다.

46) <가람본>에는 후대 추록이 확실한 18수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남창 315수, 여창

하면, <일석본>에 없는 작품들은 정확히 축약본 <가람본>에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악원본>이 <일석본>을 저본으로 하여 새로이 추가했던 32수도 정확히 <가람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람본>은 <일석본>을 축약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일석본>과 <가람본>, 유일하게 이 양본에서만 실리지 않는 작품수가 18수나 된다는 사실이다.

‘<일석본> <가람본> 양본에서만 등장하지 않는 작품’

- 歌番은 <국악원본>에 의함

43(김류) 218(유응부), 262(임의직), 274(정두경), 318(이정진), 483, 506, 507, 513, 521, 526, 527, 537, 540, 556, 557, 566, 619

이 작품들은 『가곡원류』 다른 이본들에는 실렸으나, 오직 두 본에서만 실리지 않은 것들이다. 그만큼 이들의 친연관계는 매우 직접적이다. 따라서 <가람본>은 <일석본>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록 작품들 상황은 <일석본>과 같이 <국악원본> 이전 시기의 것들을 보여준다.

앞의 발문대비에서 <일석본> ‘발문’과 <가람본> ‘발문2’에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與門生安玫英相議” 구절 없음 역시 이들 발문이 친연관계가 있을뿐더러, <국악원본>으로 수정 보완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일석본> 발문에는 ㉠구절이 더 들어 있다. ㉠은 <가람본: 발문2>에는 없고 <국악원본>에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람본>은 앞의 각주 18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곡 부분’을 먼저 편찬하고, 후에 ‘발문2와 가사’를 새로이 써서 합철한 것이다. 따라서 <가람본> ‘발문2’

131수, 총 428수이다. 그런데 <일석본>은 현재 남창만 남아 있어, <가람본>과의 비교도 남창에서 이루어졌다.

를 베낄 때, <일석본> 발문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일석본>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본의 발문을 필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가람본>의 ‘가곡 본문’과 ‘발문2’ 두 글은 필사 시기와 대상 가집에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람본>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일석본> 혹은 <일석본>과 거의 같은 단계에서 만들어진 <국악원본> 이전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일석본> <가람본>의 ‘작품 수록 양상’과 ‘발문’은 <국악원본> 이전 단계를 보여준다. 『가곡원류』는 <국악원본> 완성 이전에 이미 ‘박효관 발문’까지 갖춘 가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壬申(1872)’은 하순일 기억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일석본>은 ‘최종 원고본’ 완성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집이라 할 수 있다.

3) 1870년의 필사본 『여창가요록』

『가곡원류』 이본들 중 여창만으로 이루어진 가집은 둘이 있다. 이 중 1872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동양문고본 『여창가요록』이 있다. 이 가집은 ‘박효관 발문’은 없지만, 그 필사연대를 통해 1872년 이전 『가곡원류』 모습을 알아보기에 좋은 자료이다.

우선 이 가집 끝에 있는 필사기를 통해, 편찬연대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庚午仲春望間雪峰試(경오년 중춘 보름에 설봉이 시험삼아 쓰다)
愚泉

庚午는 1870년이다.⁴⁷⁾ 雪峰⁴⁸⁾은 일반적으로 기생 이름이라고 알려져

47) 심재완은 『시조의 문헌적 연구』(앞의 책, 62면)에서 庚午를 1930년으로 보았다. 그 근거는 『가곡원류』계 편찬 이전에 이런 가집이 나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미 <국악원본>의 완성을 1872년으로 확정했고, 1872년 이전에 만들어진

있으나, 필체로 보아 여성일 것 같지는 않다. 또한 ‘雪峰’의 이름을 지우고 옆에 ‘愚泉’이라고 추기한 것이 보이는데, 이로 보아 소장자가 바뀐 것으로도 추측된다. ‘愚泉’ 역시 기생의 이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창 가집의 주 소비자는 당연히 歌妓이다. 그러나 여창 가집 필사에는 남자들도 참여했음이 이 가집을 통해 확인된다.⁴⁹⁾

이 가집은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박효관 발문’에서 말한 ‘연음표’가 거의 전 작품에 매우 착실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곡원류』계 여창의 공통적 특징인 중대엽 계열 작품들에 ‘연음표’를 달지 않는 현상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곡원류』 여창의 이런 특성들은 이미 1870년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이 가집의 작품과 수록순서는 여타 남녀창 합본의 『가곡원류』 이본들의 여창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를 밝힌 심재완은 일찍부터 이를 『가곡원류』 이본으로 설정하였다.⁵⁰⁾ 실제 이 가집에는 박효관 작품 2수, 안민영 작품 3수가 실려 있다.⁵¹⁾ 이는 1870년 이들 편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가집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셋째, 작품 본문이 모두 끝난 부분 상단에 ‘계락 빠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그 아래에 본문과 동일 필체로 ‘계락’ 한 수를 이어 적고 있다. 그 작품은 다음과 같다.

것으로 <일석본>을 밝혔다. 이런 제 사실로 볼 때, 庚午는 1870년이라고 판단된다.

48) 필자는 『女唱歌謠錄』 해제를 쓰면서, ‘雪峰’ 글자를 ‘雲峰’으로 오독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 신경숙, 『『女唱歌謠錄』 해제 및 영인』, 『한국음악사학보』 16집, 한국음악사학회, 253면.

49) 이는 이세보가 기생 경옥에게 주기 위해 가집을 만들었던 것과 방불하다.

50) 심재완, 앞의 책, 61면

51) 박효관 작품 36, 122번, 안민영 작품 29, 47, 136번.

이 몸이 죽거드란 못지 말고 줍푸리여 메여다가
 듀천 웅텅이에 풍 드룻쳐 등등 띄여 두고
 평상에 즐이던 술을 장취불성 흐리라

이 추록은 필체, 자형 크기, 행 간격 등이 본문과 동일하여, 후대에 추록한 것이 아니라 필사과정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마지막에 이어 넣은 것이다. 이 작품 다음에 약간의 행을 띄우고 필사기가 적혀있다. 이는 이 가집이 처음으로 여창 작품을 엮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저본을 놓고 재 필사해서 완성했음을 보여준다. 즉 1870년 설봉이 필사할 때 ‘저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창가요록』의 저본은 1870년 혹은 이보다 일찍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여창가요록』은 1870년에 만들어졌고, 그 저본은 더 일찍 만들어졌다. 이는 ‘박효관에 의한 최종 완성본’ 이전의 가집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완성본인 <국악원본> 이전부터 ‘박효관 발문’을 갖춘 가집과 여창만으로 된 가집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는 ‘최종 완성본’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중간단계의 이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완성본 이전의 초기본’들은 그 나름의 유통과정을 통해 향유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 고종조 초년의 가집

본고는 『가곡원류』 완성본은 <국악원본>이고, 이의 연찬연대는 1872년임을 밝혔다. 나아가 <일석본> <가람본> <여창가요록> 등을 통해, 1872년 이전에 이미 『가곡원류』는 완성본에 근접한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들 가집들도 이미 유통되고 있었음을 살폈다.

『가곡원류』는 일찍이 경복궁 중건 시기에 맞추어 대원군의 지원으로 박

효관 안민영 등에 의해 이루어진 가집이다. 경복궁 중건은 1865~1868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본고에서 새로이 밝힌 사실들은 바로 이 시기들과 매우 인접한 때에 『가곡원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고종 초년 대원군의 집권 시작과 함께 사실상 『가곡원류』 편찬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종 초년부터 시작된 가집 만들기 과정은 1872년에 완성분을 내놓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이 짧은 몇 년 사이에 산출된 『가곡원류』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완성분이 나왔으나, 편자들 주변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본들이 형성되어 갔음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해동악장』 『화원악보』 등이다. 이 중 1872년으로부터 불과 4년 후, 『해동악장』은 ‘안민영 서’ ‘박효관 서’를 달고 아예 안민영의 가집으로 편찬되기에 이른다.

이제 『가곡원류』는 1872년 <국악원본>을 기준으로, 1872년 이전 단계의 이본 형성 과정과 1872년 완성분 이후의 이본 형성 과정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자에서는 완성분을 만들어가는 가객들의 시각이 시시각각 노정되는 단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에서는 완성분 이후 불과 이삼십 수 차이로 만들어지는 이본들을 개별 가집으로 대했던 당대인들의 시각을 만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호. 「가집 『해동악장』의 작품 수록 양상과 편찬 특성」. 『어문연구』 1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19~227면. 236면.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74년. 109면.
 신경숙. 「『女唱歌謠錄』 해제 및 영인」. 『한국음악사학보』 16집. 한국음악사학회. 253

면.

- _____.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시조학논총』 26집. 한국시조학회. 127, 132~134, 146~147면.
- _____. 「근대초기 가곡 교습」. 『민족문화연구』 4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215~222면.
- _____. 「조선후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한국고전문학회 248차 학술대회 자료집. 70면.
-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51면. 58면. 61~62면.
- 오중각. 「『가곡원류』의 새로운 이본인 『지음』 연구」. 『국문학논집』 15. 단국대 국어국 문학회, 1997. 306~311면.
-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06면.
- 장사훈. 「가곡원류 해제」. 『가곡원류』. 한국음악학자료총서 5. 국립국악원, 1981. 4면.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8. 440~441면.
- 조윤제. 「가곡원류 해제」. 『조선어문』 5. 조선어학회, 1932. 11면.
-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 종로인문사, 1943. 2면.
- 황인완. 「『가곡원류』 이본 계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21. 23. 24면.
- 황충기. 「가곡원류 편자에 대한 이견(Ⅱ)」. 『어문연구』 76호. 1992. 135면.

Abstract

Reconsideration of *Gagokwonryu*'s published date

Shin, Kyung-Sook

There are all 17 versions of *Gagokwonryu*'s(歌曲源流) different ed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ich one among them is the finished work made by *Park Hyo-Kwan* and when it was compiled. In the discussion process, it found out several facts as follows.

First, the finished work made by *Park Hyo-Kwan*(朴孝寬) was transmitted to *Ha Soon-il*(河順一), *Ha Soon-il* to *Ha Kyu-il*(河圭一), and finally *Ha Kyu-il* to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econd, there is a certain year called '*Im-shin*'(壬申) in the abbreviated *Gagokwonryu*'s postscript edited by *Ha Soon-il*, and the year is 1872.

Third, the same one as the abbreviated *Gagokwonryu*'s postscript edited by *Ha Soon-il* is also printed in <*Gugakwon's version*>

Fourth, <*Gugakwon's version*> is the only version that completely got editing form which was written in *Park Hyo-Kwan*'s postscript.

Fifth, *Park Hyo-Kwan*'s postscript was also printed in <*Il-suk's version*> and <*Ga-ram's version*>, but these are the early postscripts that is written before <*Gugakwon's version*>.

Sixth, works in <*Il-suk's version*> and <*Ga-ram's version*> was edited before <*Gugakwon's version*>

Seventh, 『*Yeochang-gayorok*』 shows women's song collected by compilers in 1870.

Through above facts, it found out that ①<*Gugakwon's version*> is the finished work made by *Park Hyo-Kwan*, ②its compiled year was 1872, ③

there are several early different versions of <*Gugakwon's version*> before 1872.

Key-words : *Gagokwonryu*, *Park Hyo-Kwan*, finished work, year 1872, *Ha Soon-il*, *Ha Kyu-il*.

신경숙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주소 :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번지

전화번호 : 010-3099-4014

전자우편 : sks4014@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5월 13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년 5월 13일 게재 확정됨.